

칠레

2003. 9

김진오

(jokim@kiep.go.kr)

I. 일반 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736,903 km²(남극령 포함 2,006,626 km²)
- 인 구: 1,545만 명(2002년)
- 기 후: 수도 및 북부지역 연중 온화, 남부호수지역 한랭다습
- 시 간 대: GMT보다 4시간 늦음(한국보다 13시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칠레공화국(Republic of Chile)
- 수 도: 산티아고(메트로폴리탄지역 600만 명)
- 행정조직: 12개 지역(region) 및 산티아고 메트로폴리탄 지역, 51개 州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6년 임기)
- 대 통 령: 라고스(Ricardo Lagos, 2000년 3월 11일 취임)
- 의회형태: 양원제(2001년 12월 선거), 상원(8년 임기 선출직 38석, 임명직 9석, 전직 대통령 종신직 2석), 하원(120석, 4년 임기)
- 주요정당: 집권여당연합(Concertación, 하원 69/상원 20, 상원의 경우 임명직 및 종신직 제외)의 기독교민주당(PDC), 급진사회민주당(PRSD), 사회주의당(PS), 민주주의당(PPD) ; 야당연합(Alianza por Chile, 의석수 51/17)의 국가개혁당(RN), 독립민주주의연합(UDI)

□ 사회·문화

- 민 족: 혼혈인(75%), 백인(20%), 인디오(5%)
- 언 어: 스페인어
- 종 교: 카톨릭, 개신교
- 공 휴 일: 해군의 날(5월 21일), 자유의 날(9월 11일), 독립기념일(9월 18일)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6월 12일
- 협정체결: 무역협정(1977년), 항공협정(1979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2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한·칠레 FTA 서명(2003.2.15)
- 취향도시: 없음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항 목	단 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내총생산 ¹⁾	십억 달러	82.8	79.4	73.0	74.9	68.3	66.4	68.1
1인당 GDP ¹⁾	달러	5,663	5,355	4,861	4,922	4,432	4,234	4,312
실질GDP성장률	%	6.6	3.2	-1.0	4.4	2.8	2.0	2.7 ³⁾
금리(평균) ²⁾	%	-	18.42	11.93	13.91	11.28	7.49	6.36 ⁴⁾
공업생산증가율(연율)	%	4.0	-1.1	-1.3	4.2	0.8	2.5	2.2 ⁵⁾
물가상승률(연율)	%	6.0	4.7	2.3	4.5	2.6	2.8	3.1 ⁴⁾
실업률(INE, 기말) (대도시 중심)	%	5.3 6.5	7.2 11.4	8.9 12.4	8.3 13.4	7.9 13.1	7.8 11.9	9.1 ⁵⁾ 13.4 ⁵⁾
수 출(FOB)	십억 달러	17.9	16.3	17.2	19.2	18.5	18.3	12.1 ⁴⁾
수 입(FOB)	"	19.3	18.4	14.7	17.1	16.4	15.8	10.3 ⁴⁾
경상수지	"	-3.67	-4.01	-0.30	-1.07	-1.24	-0.55	0.1 ⁶⁾
외환보유고(기말)	십억 달러	17.8	16.0	14.7	14.7	14.2	15.3	15.4 ⁴⁾
환율(CRM, 기말)	페소/달러	464.33	469.58	489.82	507.07	522.35	538.02	548.72 ⁷⁾

주: 1) Global Insight 전망치, 2) 전체 금융기관 단기물(30~89일물) 명목여신금리 기준, 3) 2분기, 4) 7월 기준, 5) 6월 기준, 6) 상반기 기준, 7) 8월 기준.

자료: Banco de Chile ; Global Insight. April 2003.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Third Quarter ; Global Insight. June 2003. *Chile-Summary of Detailed Forecast, Annual Numbers*.

2. 향후 경제전망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3.1	5.0	5.3	5.4	5.6
물가상승률(%)	3.4	3.1	2.6	3.1	3.0
실업률(%)	8.1	7.6	7.2	6.6	6.3
경상수지(십억 달러)	-0.1	0.2	0.6	0.8	1.2

자료: Global Insight. April 2003.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Third Quarter.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2001~2003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FOB)				수 입(CIF)			
	품 목	2001년	2002년	2003.5	품 목	2001년	2002년	2003. 5
1	광 물	7,511.1	7,317.4	3,366.0	제조업	13,530.8	13,087.5	5,819.7
	구리	6,745.9	6,269.8	2,898.6	기계금속장비	6,571.6	6,435.5	2,835.4
2	식음료담배	3,341.2	3,486.4	1,554.2	화학제품	3,387.9	3,204.2	1,461.2
3	과실류	1,423.9	1,509.5	965.8	원유,석탄,가스	2,152.2	2,040.3	1,179.9
4	화학제품	1,556.8	1,488.3	811.0	섬유의류가죽	1,043.7	995.5	448.5
5	목재가구	1,014.2	1,154.8	515.9	식음료·담배	920.0	948.2	440.5
6	펄프제지	1,125.8	1,118.9	491.3	펄프제지	479.2	421.9	174.3

자료: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No. 905, Julio 2003 ; *Indicadores de Comercio Exterior*, Mayo 2003.

나. 지역별 수출입(2001~2003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FOB)				수 입(CIF)			
	국 가	2001년	2002년	2003.5	국 가	2001년	2002년	2003.5
1	미 국	3,421	3,690	1,694	아르헨티나	3,064	3,064	1,566
2	일 본	2,136	1,948	925	미 국	2,871	2,560	1,080
3	중 국	1,070	1,270	756	브 라 질	1,498	1,618	770
4	멕시코	825	908	351	중 국	1,053	1,172	537
5	영 국	1,228	805	302	독 일	689	723	292
6	브라질	830	678	306	일 본	552	543	253
7	이탈리아	800	865	391	멕 시 코	533	475	174

자료: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No. 905, Julio 2003 ; *Indicadores de Comercio Exterior*, Mayo 2003.

다.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투자	투자회수		순투자
		자본	이익	
1975-1995	2,872	196	83	2,676
1996	1,248	105	13	1,143
1997	2,570	339	93	2,231
1998	11,493	6,412	80	5,081
1999	22,327	13,594	186	8,733
2000	23,040	18,329	352	4,711
2001	29,625	24,990	465	4,635
2002	26,819	23,196	224	3,623
2003.5	13,110	11,358	136	1,752
누계	127,680	93,124	1,575	34,556

자료: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No. 905, Julio 2003.

□ 주요 대상국별 및 업종별 해외투자 추이(2003년 5월말 순투자 잔존기준)

(단위: 백만 달러)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상업	교통통신 창고	금융서비스	기타 서비스	총계 ¹⁾
미국	147	204	313	252	114	373	150	14,837	91	16,481
아르헨티나	161	7	707	644	15	439	346	1,334	22	3,675
케이만군도	16	0	24	30	96	56	60	3,635	8	3,925
파나마	198	1	82	39	0	87	364	862	0	1,633
뉴질랜드	0	0	0	0	0	0	0	1,061	0	1,061
영국	4	79	13	0	0	-25	18	803	0	892
브라질	2	14	82	43	4	145	6	473	17	786
페루	2	3	267	51	6	144	13	246	3	735
총계	635	398	1,790	1,231	322	1,636	1,158	27,170	216	34,556

주: 1) 기관투자자 제외.

자료: Banco Central de Chile, *Boletín Mensual*, No. 905, Julio 2003.

□ 외국인직접투자(실행기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기간	DL 600 ¹⁾	CNCI 14조 ²⁾	CNCI 19조 ²⁾	총계
1974~1984	2,316	284	-	2,600
1985	167	6	32	205
1986	262	7	214	483
1987	541	14	707	1,262
1988	845	18	886	1,749
1989	979	16	1,321	2,316
1990	1,315	36	418	1,769
1991	982	98	22	1,102
1992	999	158	-	1,157
1993	1,734	204	-	1,938
1994	2,521	410	-	2,931
1995	3,040	410	-	3,450
1996	4,822	442	-	5,264
1997	5,230	921	-	6,151
1998	5,973	539	-	6,512
1999	9,086	689	-	9,775
2000	2,977	736	-	3,713
2001	4,848	775	-	5,623
2002	3,322	446	-	3,768
2003.1~6 ³⁾	687	270	-	957
총계	52,647	6,479	3,600	62,725

주: 1) 외국인투자법下 실행기준, 2) 중앙은행 외환관리규정下 실행기준, 3) 잠정치.
 자료: 중앙은행 ;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

□ 경제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DL 600 실행기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74-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¹⁾	2003 ¹⁾	총계
농축산업	163	16	14	12	21	22	10	2	0	260
건설업	303	26	114	280	216	20	165	138	25	1,296
전기가스수도	93	406	1,395	495	4,560	860	908	490	126	9,333
수산업	129	21	12	9	1	94	5	0	10	281
임업	133	20	29	37	19	4	1	1	1	245
제조업	2,731	917	593	530	779	191	754	209	28	6,732
광업	8,558	999	1,705	2,393	1,221	242	1,024	1,935	142	18,219
서비스업	2,686	1,958	1,197	2,006	1,910	665	700	212	78	11,412
교통통신업	906	459	171	211	359	870	1,281	335	277	4,869
총계	15,702	4,822	5,230	5,973	9,086	2,977	4,848	3,322	687	52,647

주: 1) 잠정치.

자료: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hile Investment Review*, August 2003.

□ 국가별·경제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DL 600 실행기준), 1974~2002년(누적)

(단위: 천 달러)

	농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	어업 양식업	임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교통 통신업	국별 총계
아르헨티나	2,211	29,501	242,415	60	0	205,448	868	111,847	36,367	628,717
호주	0	18	58,985	0	0	57,373	1,814,975	39,002	5,126	1,975,479
오스트리아	1,898	0	0	0	21,693	2,794	0	181	0	26,566
바하마	100	0	0	0	475	1,869	838	197,029	3,000	203,311
벨기에	1,102	294	423,566	0	0	23,409	0	27,737	3,339	479,447
버뮤다	1,645	0	0	1,528	0	116,641	7,567	327,775	18,000	473,156
브라질	0	54,167	3,549	0	0	158,368	1,148	73,697	3,901	294,830
캐나다	8,737	2,732	582,432	20,899	103	1,356,064	4,977,215	443,346	42,410	7,433,938
케이만군도	6,133	1,277	40,003	30	300	21,389	2,839	426,673	152,375	651,019
중국	580	0	0	295	38,373	372	0	44,398	0	84,018
콜롬비아	0	0	0	0	0	3,860	0	32,422	0	36,282
덴마크	0	0	0	0	0	8,756	0	645	4,803	14,204
핀란드	0	0	0	62,675	0	2,875	14,901	2,383	0	82,834
프랑스	6,623	115,458	554,831	0	0	187,093	0	357,843	15,528	1,237,376
독일	25,227	27,959	0	2,400	6,340	111,295	5,925	261,058	16,578	456,782
국제기구	100	13,451	1,694	5,842	0	65,805	108,344	37,535	19,583	252,354
아일랜드	0	0	0	0	0	8,522	0	9,200	0	17,722
이탈리아	7,961	40,374	0	0	0	65,742	7	14,315	1,371,134	1,499,533
일본	4,474	1,000	0	7,858	27,683	231,236	1,193,890	137,624	4,946	1,608,711
한국	0	0	0	413	0	22,502	0	504	1,000	24,419
리히텐슈타인	4,250	104	0	890	3,260	55,888	4,100	63,051	0	131,543
룩셈부르크	33,545	227	0	0	0	7,025	20	101,997	0	142,814
말레이시아	0	18,400	0	0	0	0	0	4,523	0	22,923
멕시코	0	3,084	0	0	0	97,815	0	38,976	2,737	142,612
네덜란드	7,359	349	0	1,365	0	432,254	16,026	910,199	3,381	1,370,933
안티야스(네)	1,617	0	0	0	2,122	615	1,584	22,124	2,300	30,362
뉴질랜드	22,222	0	0	1,263	23,911	107,288	3,257	847	0	158,788
노르웨이	0	0	0	130,190	0	118,347	34,074	2,193	846	285,650
파나마	12,449	38,354	0	165	6,369	72,343	1,754	67,967	3,341	202,742
파푸아뉴기니	0	0	0	0	0	0	46,509	0	0	46,509
페루	70	1,489	0	500	0	3,861	155	16,539	850	23,464
남아공	0	841	0	4,443	312	43,153	1,303,933	42,595	138	1,395,415
스페인	1,298	723,695	4,747,425	997	130	168,304	2,194	2,843,546	1,120,033	9,607,622
스웨덴	0	98,773	0	408	6,000	43,215	0	16,024	1,322	165,742
스위스	8,232	27,858	14,405	0	21,708	255,525	0	167,497	5,058	500,283
영국	16,769	2,973	297,919	7,044	675	438,545	2,812,238	354,710	219,110	4,149,983
미국	78,821	36,345	2,237,553	16,232	85,082	2,171,806	5,715,167	3,984,345	1,526,237	15,851,588
우루과이	6,005	28,259	1,960	100	0	14,840	510	70,014	1,524	123,212
베네수엘라	35	2,272	0	0	0	4,972	0	51,094	0	58,373
부문별 총계	260,855	1,270,242	9,206,737	270,843	244,536	6,703,348	18,076,212	11,334,012	4,593,037	51,959,822

주: 천만 달러 이상 투자국가 대상.

자료: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provisional figures as of December 31, 2002.

4. 한·칠레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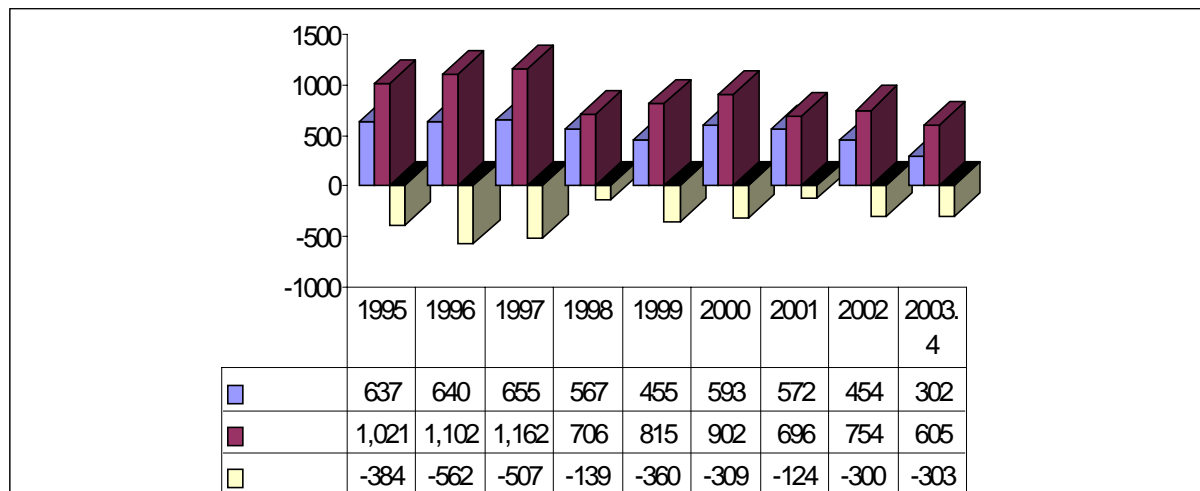
가. 교역

□ 교역비중(2002년 기준)

- 칠레는 한국의 42대 수출국, 29대 수입국
- 한국은 칠레의 7대 수출국, 9대 수입국

□ 한국의 對칠레 연도별 수출입 추이(1995~2003년 7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국의 對칠레 업종별 수출입 내역(2001~2003년)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2001년	2002년	2003.7		2001년	2002년	2003.7
기계·운반용	1879	165	106(17.2)	철강·금속	338	430	288(18.3)
전자·전기	168	105	50(-30.8)	광 산 물	198	178	168(54.6)
섬 유 류	51	38	20(-14.2)	화학공업	105	74	87(107.8)
화학공업	51	44	35(36.4)	농림수산물	54	70	61(34.5)
철강·금속	34	30	11(-38.5)	섬유류	0.2	0.3	-(-7.6)
플라스틱고무	20	20	12(14.0)	기계·운반용	-	-	-(-3.7)

주: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MTI 1단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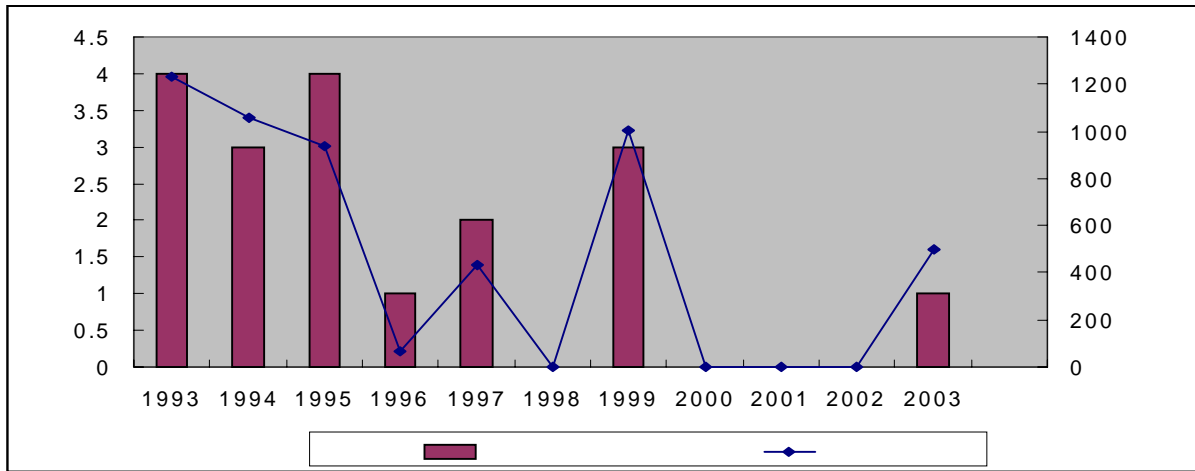
나. 투자

□ 투자비중

- 칠레는 한국의 63대 해외투자국(2003년 6월말 순투자, 한국자료 기준)
- 한국은 칠레의 36대 외국인투자국
(2002년 12월말 누적, 칠레자료 DL600 기준)

□ 연도별 對칠레 투자 추이(2003년 6월말 총투자 기준)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 업종별 對칠레 투자 내역

(단위: 천 달러)

	한국의 對칠레 투자 ¹⁾	
	건수	금액
광업	1	31,204
농림어업	4	2,950
제조업	11	9,232
건설업	0	0
운수창고업	0	0
도소매업	6	13,275
통신업	1	100
총계	23	56,761

주: 1) 2003년 6월까지 총투자 누계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Ⅲ. 경제현안

1. 칠레의 경제현안

가. 개요

□ 2003년 상반기 3.2% 성장

- 칠레 중앙은행은 8월 25일 1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내수 성장(3.4%)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증가(4.1%, 5.0%)를 바탕으로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1분기(3.5%)보다 낮은 2.7%로 나타나 경기가 다소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상반기 경제성장에 가장 기여한 부문은 구리산업이 속한 광업(6.6%)인데,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따른 가격상승과 민간부문 중심의 개발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생산을 개시한 결과임.

○그리고 전기가스수도업(5.9%), 농축임업(4.7%), 교통통신업(3.6%), 상업식당 숙박업(3.4%), 제조업(3.3%), 건설업(1.6%) 등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반면, 주요 수출업종인 수산업은 1분기 양식업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6.6%를 기록했음.

- 한편, 2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총고정자본형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반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의 10억 6,360만 달러보다 9.2% 감소한 9억 6,56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가 2분기에 1분기의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인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상반기 주요 투자국은 미국(53%), 캐나다(11.9%), 스페인(10.8%), 영국(7.3%)이고, 주요 투자업종은 교통통신업(40.3%), 광업(20.7%), 에너지산업(18.3%) 였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상반기 중 가장 두드러진 투자사례로 Dona Ines de Collahuasi 광산 확장프로젝트(9,050만 달러)를 지목하였음.

□ 해외투자 활성화

-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과는 달리 연기금사를 위시한 칠레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음.

- 칠레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해외투자 규모가 23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이 가운데 19억 2,400만 달러가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 투자되고, 2,000만 달러는 교통, 창고, 통신업에 투자되었음.

○또한, 1억 7,000만 달러는 상업에, 5,600만 달러는 제조업에, 1억 2,500만 달러는 농림축산업에, 3,500만 달러는 건설업에, 1,000만 달러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업에 각각 투자되었음.

- 지역별로는 미국을 위시한 북미지역 20억 9,000만 달러가, 남미지역에 1억 2,200만 달러가, 중미지역에 5,700만 달러가, 유럽지역에 4,800만 달러가 각각 투자되었음.

□ 물가상승률 안정 유지

- 고유가의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라크 사태 종결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는데, 7월의 경우 -0.1%의 디플레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누적 물가상승률이 1.5%(연률 3.1%)에 그치고 있음.

○7월 디플레이 현상은 식료품 가격 상승(0.3%)이 의료(-0.3%) 및 의류(-0.9%)부문 물가 하락으로 상쇄된 결과임.

- 경기가 다소 침체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내수 성장세가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하반기 환율안정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되고 석유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급격한 물가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의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는 더욱 안정화될 것임.

□ 환율변동, 유가와 브라질 환율에 민감

- 2003년 1분기에 칠레 외환시장은 국내 석유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고유가에 따른 환율상승을 경험했는데, 5월부터는 브라질 외환시장의 자본 유출입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그러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미국과 체결한 FTA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났음.

- 최근 환율은 유가동향에 따라 거의 좌우되고 있는데, 연초 달러당 718.61페소로 시작한 환율(observado 기준)은 5월 14일 694.2페소까지 하락했음,

○OPEC의 고유가 정책이 발표되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했지만, 9월 15일 현재 명목환율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국제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671.08페소로 하락한 상태임.

□ 1분기 재정수지 흑자 달성

- 재정적자로 인하여 세계개편까지 단행한 칠레의 재정수지가 자본지출 감소

(-25.0%)와 세입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상지출 증가(5%) 억제를 바탕으로 1분기에 1,130억 페소(1억 5,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음.

○세입은 2003년 총세입 예상분의 24.1%인 2조 7,000억 페소(38억 달러)에 달한 반면, 세출은 2003년 총세출 예상분의 22.5%인 2조 6,000억 페소(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했음.

- 1분기 재정수지 흑자는 금년 정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인데, 이는 2003년 예산안이 GDP증가율 4%, 내수증가율 4.5%, 연평균 구리 수출가격 파운드당 78센트, 재정적자 GDP대비 0.7%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임.

○이와 함께 지난 1월 10억 달러의 성공적인 기채와 1분기 6,000만 달러의 외채 조기상환 등으로 정부의 가용외환이 11억 달러를 상회하는 점도 하반기 재정운영을 낙관적으로 전망케 하는 기초가 되고 있음.

□ 세제개편 단행

- 사회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다소의 수정을 거쳐 6월 18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속에 하원을 통과하였음.

○찬성 55, 반대 53이라는 표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민주주의연합(UDI)이 중심이 된 야당은 최근 불거진 부패사건을 근거로 정부안에 반대했는데, 라고스 대통령은 여당연합(Concertacion)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음.

-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IVA 세율 인상(2년간 2% 포인트 인상안 수정, 2003년 10월부터 18%→19%), 담배 및 디젤유 세율 인상(2년간 2% 포인트) 등이고, 주류세 인상안은 거부되었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금년 10~12월 사이에 약 8억 달러, 2006년까지는 매년 32억 달러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될 것임.

○세입 증가분은 칠레의 보건부문 개혁과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Solidario) 재원으로 이용될 것임.

□ 교역증가, 무역수지 흑자 감소

- 2003년 들어 칠레의 교역은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하고 있음.

○교역증가는 구리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에 따른 결과임.

- 2003년 7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21억 달러, 수입은 15.7% 증가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는 18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21억 달러에 비하여 14.3% 감소하였음.

□ 경제전망

- 칠레 정부는 8월 14일 2003년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는데, 민간기관 및 국제기관 등의 전망치를 종합할 경우 3~3.3% 성장은 무난할 전망이다.

○IMF는 8월 20일 칠레의 건전하고 신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안정적인 물가등을 감안하여 금년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음.

- 한편, 칠레 전국상업서비스관광협회(CNC)도 7월 경기전망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3~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CNC 월례회의에는 전국 각지의 상업, 서비스업, 관광업 협회 대표들과 각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데, 월례회의를 이용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9%가 금년 성장률을 3~3.5%로, 37%가 2~2.5%로, 11.1%가 3.5~4.0%로 각각 전망하였음.

○ 응답자의 63%는 금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55%가 상업부문의 회복전망에 낙관적으로 응답하였음.

-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리스크는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것인지, 미국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연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야기한 부패스캔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임.

- 중앙은행 목표치인 2~4% 이내에 머물고 있는 물가상승률은 부가가치세율이 18%에서 19%로 인상되는 10월까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0.85% 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연말 물가상승률이 3.5%까지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내수회복의 지속은 기업들의 가격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 EFTA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예상되는 수입물가 하락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장률 제고, 구리가격 상승, 브라질 레알화 안정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환율 동향은 외환보유고 안정, 수출증가, 경상수지 흑자 증가 등과 연계되면서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나.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특이 사항 없음.

고용창출 방안 마련

- 칠레경제는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고성장을 유지해 왔는데,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03년 5~7월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3% 포인트 하락한 9.1%를 기록했는데, 이는 실업자 수 548,260명에 해당함.

다. 대외경제현안

□ 칠레 의회, 미국과의 FTA 심의 개시

- 정부는 지난 6월 6일 미국과 서명한 FTA 협정문을 8월 13일 하원에 송부했는데, 하원이 8월 26일부터 검토를 개시했음.
 - 외무부와 Edgardo Riveros(DC) 하원 대외관계위원회 의장은 FTA 협정문의 의회 비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칠레-미국 FTA는 2004년 1월에 무난히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 하원은 2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칠레-미국 FTA 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경우 금년 10월말 혹은 11월 초에 상원 비준 절차까지 종결될 예정임.
- 한편, 칠레 정부는 의회가 FTA 비준을 위해 협정문을 검토하는 와중에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규모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미국은 7월 31일에 상원으로부터 칠레와의 FTA를 비준 받았는데,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만 남은 상태임.

□ 칠레-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체결

- 멕시코와 더불어 중남미지역 FTA 중심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칠레가 6월 26일 유럽자유무역연합(이하 EFTA)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하였음.

○ 칠레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로 구성된 EFTA는 2000년 12월 협상이 시작되어 6회의 공식협상 끝에 지난 3월 23일 타결되었음.

- 칠레는 同 협정 체결로 유럽의 선진국들 대부분과 자유무역을 실현하게 되었는데, 2004년부터 동유럽의 10개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할 경우 칠레는-유럽 대륙과 실질적인 FTA를 성취하는 최초의 국가가 됨.

○ 칠레는 同 협정을 2002년 3월 체결한 EU와의 FTA(2003.2 발효)에 대한 자연스런 보완요소로 간주하고, 고소득 시장에 대한 칠레産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시장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EFTA 회원국들의 지리적 위치와 EU와 관계된 규범과 정책들의 유사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효과가 클 것임.

- 칠레-EFTA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및 투자, 일반무역규범, 제도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인하의 경우 발효 즉시 상호 90% 이상 교역품 관세가 철폐되고, 철폐대상 품목은 대부분이 공산품임.

○ 관세인하 철폐 및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접근 양허안 이외에 상품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 기술규범, 경쟁, 지적재산권, 무역보호와 같은 무역관련 규범들로 구성되어 있음.

○ 서비스관련 협정은 해당 분야별 규범과 시장개방 규정으로, 투자규정은 투자프로젝트 마련과 개발을 위한 투자자 보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EU와 미국과의 FTA에서처럼 투자규정은 수출업자들의 진출공간을 만들면서 양측의 공공계약 과정에 동등한 조건으로 피조달자의 참여를 가능케 하였음.
-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쟁해결기구와 협정 적용과 발전에 책임을 질 양측간 공동 위원회(각료급) 설립 규정이 포함됨.
- 同 협정의 최대 특징은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상호 수출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금지키로 합의한 점임.
- EFTA측 양허안에 따르면 발효 즉시 EFTA 회원국들에 대한 칠레 수출품의 90% 이상이 관세철폐 대상이 될 예정인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만을 감안할 경우 발효 즉시 관세철폐 대상품목은 96%에 달함.
- 발효 즉시 무관세 교역품목 가운데 칠레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은 구리, 메탄올, 원목, 펄프, 어분(fish flour), 냉동제품, 포도주스, 생선 등임.
- 농산물 교역은 FTA의 일부인 “농산물 교역에 관한 보완협정”에 따라 이행되는데, EFTA 각 회원국들과 양자형태로 체결되었음.
- 보완협정에 따르면, 칠레産 농산물에 대한 EFTA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3개-즉시철폐, 부분관세인하(0%는 아님), 예외-로 매우 단순하고, 現 WTO 기준에 의거하여 몇몇 제품에 쿼터제가 적용됨.
- 이에 반하여 EFTA 회원국들은 生馬, 물개 고기, 훈제 양고기 등 제한된 상품 리스트를 위한 농업분야 시장접근을 요청했음.
- 칠레의 주력 수출품인 과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발효즉시 철폐되고, 수산물의 경우도 대부분이 발효즉시 철폐됨.
- 공산품에서 칠레는 즉시철폐, 4년 철폐, 6년 철폐, 예외 등 4개 카테고리를 양허했

는데, 대부분이 즉시철폐에 해당함.

- 칠레-EFTA FTA는 2003년 중으로 양측 의회의 비준을 받아 2004년 1분기 중에 발효될 예정인데, 칠레는 멕시코(2001.1 발효)에 이어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EFTA와 FAT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음.

○ 이번 EFTA와의 FTA 체결로 칠레는 전체 유럽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향후 對유럽 통상의제도 EU 확대에 따른 참여국들과의 쌍무 협상에만 집중할 수 여유를 갖게 되었음.

- 한편, 칠레는 2003년 중으로 미국, 한국, EFTA와의 FTA를 정상적으로 비준하여 2004년부터 발효시킬 경우 FTAA,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칠레-볼리비아, 제6차 FTA 협상 개최

- 칠레와 볼리비아는 8월 25일부터 이틀간 산티아고에서 양국간 FTA를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한 바, 同 FTA의 목적은 볼리비아의 시장개방을 앞당기고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음.

- 지난 5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양측은 관세철폐 품목,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양국간 최대 민감품목으로 간주되는 설탕의 쿼터 규정임.

○ 양국 외무장관들은 설탕 쿼터 규정 문제는 양 정상직접 협의해야 해결 가능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번 6차 회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양측 대표들은 협상의 최대 난제들로 간주되는 설탕 쿼터제,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분쟁해결, 세이프가드 등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하였음.

- 칠레와 볼리비아는 1993년부터 제한적인 상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경제보완협정(ACE)을 유지하고 있는데, ACE를 자유무역협정으로 심화시키는데 합의한 바 있음.

○ 2002년에 양국간 교역량은 1억 6,23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칠레의 수출이 1억 3,970만 달러, 수입이 2,260만 달러였음.

○ 칠레 주요 수출품의 67%가 공산품인데, 고무플라스틱제품과 금속제품, 제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칠레의 주요 수입품은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LPG, 석유, 양가죽 등임.

2. 한·칠레 경제현안

가. 교역 현황

□ 2003년 들어 양국간 교역은 수출입 양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7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3억 252만 달러를, 수입은 同 37.3% 증가한 6억 474만 달러를 기록했음.

- 품목별로 살펴볼 때 기계류(17.2%), 광산물(35.4%), 화학공업제품(36.4%),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4.0%) 수출은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제품(-30.8%)과 섬유류(-14.2%) 및 철강제품(-38.5%)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면모를 보임.

○ 수입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금속(18.3%), 광산물(54.6%), 화학공업제품(107.8%), 농림수산물(34.5%)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2년에 급증세를 보였던 전기전자제품(-46.7%), 플라스틱고무가죽(-33.7%), 섬유류(-7.6%) 수입은 감소하였음.

나. 투자 현황

□ 한국의 對칠레 직접투자는 미진한데, 2000년부터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3월 1건에 50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 2003년 6월말 현재 한국의 對칠레 직접투자규모(순투자)는 21건에 2,546만 달러를, 총투자로는 23건에 5,676만 달러를 기록중임.

- 한국의 對칠레 산업별 직접투자현황(총투자)을 살펴보면, 광업이 1건(3,120만 달러), 도소매업이 6건(1,327만 달러), 제조업이 11건(923만 달러), 농림수산업이 4건(295만 달러), 통신업이 1건(10만 달러)임.

- 한편, 2004년에 양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직접투자 진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칠레의 對韓 직접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다. 주요 통상현안

□ 칠레 하원, 한-칠레 FTA 비준

- 칠레 하원은 8월 26일 2003년 2월 15일 공식 서명된 “한국-칠레 FTA 비준안”을 찬성 95표, 기권 3표로 승인하고, 헌법절차에 따라 상원 대외관계위원회에 송부하였음.

- 同 협정은 아시아와 미주 국가 사이는 물론 칠레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 칠레는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ASEAN과 APEC에서 활동 중인 한국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및 APEC 전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칠레는 브라질, 멕시코와 더불어 칠레의 수출상대국으로 4~6위 자리를 다

투는 한국과의 FTA라는 점에서 협정의 중요성을 찾고 있음.

- Soledad Alvear 외무장관은 하원의 비준안 승인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한국과의 FTA가 상품 교역과 투자의 관점에서 칠레에 새로운 기회를 개방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한국과의 FTA는 칠레 농업부문에 더 많은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원에서 보여준 FTA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가 FTA 발효시 까지 지속되기를 희망하였음.

- 한편, Soledad Alvear 외무장관은 한국이 협정발효와 동시에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등을 이용하여 칠레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FTA를 통해 농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국은 협정에 따라 224개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함.

- 또한 Soledad Alvear 외무장관은 농민단체들의 반대와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국회가 FTA 비준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의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맞이한 최대 난제라고 지적함.

- 한편, 칠레 하원이 비준안을 반대 없이 승인한 점은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